

이호철(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4차 구술

1. 구술자: 이호철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2년 7월 18일
5. 구술장소: 부산 연제구 법무법인 부산
6. 구술분량: 07분 42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1995년 부산시장 선거 당시 지역등권론¹⁾과 노무현의 선택

구술자 : 그래서 저는 부산시장에 출마한다, 같이 의논해서. 난 또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부산지역정책연구소 있었고, 지구당 활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고, 몇 달 전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더 이제 마음을 독하게 먹고 지구당사, 당사 안에 라꾸라꾸 침대를 넣어 가지고 침실을 만들었어요. 한 삼(3)개월 전부터, 선거 삼(3)개월 전부터 당사 안에 라꾸라꾸 침대가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폐쇄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노후보가) 기거를 하셨어요. 아침에는 동네 목욕탕 가고 밥은 계속 바깥에서 사드시고 그렇게 했죠. 부산시장 선거 때 맞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역정책연구소에서 백(100)대 공약을 만들어왔어요. 근데 보시더니만 “나 약속 못 지킨다, 이거. 다 폐기해라” 이렇게 됐지요. 왜냐하면 ‘예산의 문제도 있고, 내가 이것을 부산시장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공약 안 쓴다. 나는 행정개혁을 내걸겠다’ 그래가지고 티비(TV)토론도 하고 그랬지요.

면담자 : 그래도 이때가 구십이(92)년 총선 때보다는 분위기가 좋았나보지요?

구술자 : 분위기가 썩 좋았던 것은 아닌데, 당시 민자당 부산시장 후보로 문정수 후보가 나왔어요. 문정수 후보의 소위 자질에 대해 가지고 언론에서나 여러 군데서 문제 제기들이 좀 많았죠. 티비(TV)토론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거의 십프로(10%)에서 십오프로(15%) 정도 앞서고 갔었지요. 쪽. 그래서 조금 더 분위기가 삼(3)당 합당 때보다 좋은 거일 수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십사(14)대 총선에서 노무

1)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6·27)를 앞두고 등장한 지역등권론은 지역패권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제기됐으나 지역주의의 역풍을 불렀다.

현이라는 사람이 떨어진 데 대해서 한쪽에서는 ‘안타깝다’, 부산지역 내에서 ‘안됐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사람은 좋는데 당이 안 좋아서’ 부드럽게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왜 니 와이에스(YS) 배신하고 김대중하고 같이 일하노’ 이런 거에 지역 내의 정서로 깔려 있었던 건데. 안타까움 같은 게 있었던 거고. 또 개인의, 인물의 능력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들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상으로는 앞서가는데 문제는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부동산(이었죠). 사실상은 소위 민자당 당시, 거의 부동산표를 깨면, 깨면 투표장에 가면 육(6)대사(4) 내지 칠(7)대삼(3)으로는 오히려 민자당을 오히려 지지하는 이쪽의 부동산이 훨씬 많아요. 막상 공개를 하고 나면. 또 거기다가 초반전에 십프로(10%), 십오프로(15%) 정도 앞서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동산의 큰 흐름도 있겠지만, 당에서 지역등권론이 나옵니다. 그 지역등권론이 나오면서 심각하게 출렁거리지요, 이제. 다시 지역주의가 부는 겁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언론에서도 비판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오피니언리더 그룹에서도 지역등권론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바람이 부는 게 막 보여요. 지역등권론이 딱 나오면서는 동네 분위기가 많이 틀려지더라구요.

그래서 참모들이, 저를 비롯한 참모들이 노무현 후보한테, 시장후보한테 의견을 냅니다. “탈당합시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나중에 입당하던가 말든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는데 지역등권론이든 뭐든 나와서 내가 불리해졌다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다시 입당하든 안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대로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로 당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출마했던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탈당을 거절을 합니다. 참모들은 전부다 ‘탈당해서 이기고 다시 입당해도 되지 않느냐.’ 그 당시는 꿈수라는 말은 유행어가 아니었습니다만, (노 후보는) ‘정치는 그래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등권론 나오고 나서 삼(3)일 정도쯤에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셨어요. 언론에도 아마 보도가 되었지 싶은데요, 찾아보시면. “탈당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 면에서 구십오(95)년도 선거는 저희들에게 상당히 노 대통령을 새롭게 보는 (계기였습니다). 언론에도 인터뷰를 했어요. 티비(TV)토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부산일보나 어디 찾아보시면 ‘무소속 출마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고. ‘탈당하지 않겠다. 나는 이대로 시민으로부터 심판받겠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게 어디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면담자 : 이때 문정수 후보가 팔십팔만오천(885,000)여표, 노무현 후보가 육십사만 칠천(647,000)여표. 그러니깐 한 이십오만(250,000)표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이십삼만(230,000)여표 차이였네요.²⁾

구술자 : 네. 옳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이게. 백오십(150)만, 십 한 오프로(15%) 그럴지요. 지역등권론이 안 나왔더라도 과연 이것을 까, 에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을 것 같지는 않다.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이것을까. 그래도 이것을 것 같지는 않다, 라는 느낌은 들어요. 모르겠어요.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김대중 당’ 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인정을 했을까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한 거죠.

면담자 : 그런 의미에서는 또 대통령님의 선거사(史)에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구술자 : 그러니깐 노 대통령의 결정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참모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정치를 원칙적으로 해야지 이기기 위해서 돌아간다던가 거짓말을 한다던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마 참모들 주변에, 언론사에, 아마 언론에 보도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을 좀 시키지 않았을까. 당인(黨人)으로서 꿈수를 안 쓰신 거지요.

■ 구술자 주요이력

1958. 부산 출생

1977. - 1981. 부산대학교 행정학 학사

1982. 부림사건으로 구속

1985.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사회부장, 홍보부장

1987.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홍보부장

1989. 국회의원 노무현 보좌관

2003.02 - 2003.12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1비서관

2003.12 - 2004.04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2) 민자당 문정수 후보 88만5,433표, 민주당 노무현 후보 64만7,297표. 노무현 후보가 23만8136표 차이로 낙선

2005.02 - 2005.04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실 제도개선비서관
2005.04 - 2005.08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실 제도개선비서관
2005.08 - 2007.12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실장
2007.12 - 2008.02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2012년 현재)

1982년 부림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당시 변론을 맡은 노무현 변호사를 법정에서 처음 만났다. 이때의 인연을 시작으로 87년 6월 항쟁 전후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등에서 '노변'과 함께 활동했으며 1988년과 1992년 총선, 1995년 부산시장 선거, 2000년 총선, 2002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주요 선거과정에 참여했다. 초선의원 시절 보좌관을 맡았고 참여정부 들어 민정비서관, 제도개선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봉하마을에서 친환경 생태농업, 마을 가꾸기 등 노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보좌했다.